

백화점, 'KTX 빨대효과' 차단 분주

신세계·롯데 등 명품 브랜드 확대, 이색 문화공간 효과

정기 세일서 매출 급상승 ... 외지 쇼핑객도 증가

호남선 KTX 완전 개통에 따라 수도권 역류현상(빨대효과)이 예상 되면서 유통업체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백화점이 지구적으로 내놓은 명품 브랜드 확대와 이색 문화 공간 조성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호남선 KTX 개통일인 2일에 맞춰 지난 3일부터 봄 정기세일을 시작하고, 대규모 명품 대전을 개최한 결과 지난해 대비 의류·골프용품 등의 매출이 급상승하는 등 정기불황에 달렸던 고객의 지갑을 여는 성과를 냈다. 특히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유지한 호남 최대 규모의 해외명품대전에는 하루 3000여명의 고객이 몰리는 등 '대박' 흥행을 이뤘다는 평가다.

실제로 광주신세계의 경우 지난 주말연휴(4월3일~5일) 3일간 백화점 매출이 전년 비에 4.3% 신장했다. 스포츠·아웃도어 부문 판매 부진속에서도 골프용품과 남성 의류 등 영패션 부문이 두각을 나타낸 결과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역신장했지만 해외명품대전과 신규 명품브랜드 확장에 힘입어 일부 품목이 전년 대비 68%이상 상승하는 등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지역 백화점 업계의 이 같은 분위기는 호남선 KTX 완전 개통에 따른 외지 쇼핑객 유출이 그나마 발빠르게 대처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서울간 반나절 생활권에 대비, 지역 고객의 이탈을 막고 타

지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백화점 1층을 종합적인 문화·쇼핑 공간인 '신세계 컬처스퀘어'로 조성했다. 또 전담팀을 구성해 매출 대규모 이색 문화공연 행사를 열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호남선KTX 개통에 따른 기존 고객의 수도권 이탈을 최소화하고 올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및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광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화점 매장 구성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기존 구찌, 버버리 외에 프라다, 페라가모, 미우미우, 태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몽블랑 등 명품 브랜드를 추가해 지역 최대 규모의 해외명품관을 조성했다.

이와 관련 지역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호남선KTX가 개통된 지난 주말 이후 쇼핑객 역외 유출로 고객 감소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고객이 늘고 매출도 증가했다"며 "명품매장 개선과 문화·쇼핑 공간 조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매출 분석 결과 중국 관광객과 외지 쇼핑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대비만 잘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빨대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선 여전히 지역 유통업체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을 비롯한 지역 유통업체가 호남선 KTX 완전 개통을 계기로 명품 구매 고객 등의 유출을 막고, 외지 고객의 유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출 구성비가 높은 명품의 경우 매장 규모나 상품 구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편"이라며 "백화점과 아울렛의 규모 확장과 쇼핑 몰(Mall) 구축을 유도하는 등 전국 상권을 대상으로 한 하이엔드 종합 아울렛 유치 등 공격적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47.03 (+0.60)
-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1)
- ▲ 코스닥 666.83 (+4.68)
- ▲ 환율 (USD) 1088.50원 (+3.70)

한전, 모스크바 국제발명 전시회 3관왕

금상, 특별상 2개 수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모스크바 에코센터 '소콜니키'(Sokolniki)에서 열린 '2015 모스크바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에서 금상 및 특별상(2개)을 수상했다.

17개국이 700여점을 출품한 이번 전시회에서 한전은 한전전력연구원원 자 체개발한 '태스크기반 지능형 원격검침 시스템'을 출품했으며 출품작은 러시아 연방 과학기술교육부로부터 금상을 수상하고 카타르 발명협회와 볼가주 국립 기술대학교로부터 특별상을 동반 수상했다.

태스크기반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은 현장에 검침원이 직접 출동, 검침수집 항목을 설정하는 현재 방식에 비해 태스크라는 명령을 통해 원격으로 자유롭게 검침수집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검침수집 시간과 같은 스케줄을 관리할 수도 있다.

또 신규 기능이 추가된 신형 전력량계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통신기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수상한 방식을 적용하면 통신기 교체 없이 신형 전력량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한전은 해당 발명을 2014년 국내 200가구를 대상으로 AMI(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에 적용했고, 그 결과 AMI시스템의 검침 효율성이 향상됨을 실증했



최재명 한국전력 특허팀 부장(왼쪽) 등 한전 관계자들이 드미트리 제쭌린 러시아 모스크바 발명전시회 조직위원장(왼쪽 3번째)과 상장을 들고 있다. <한전 제공>

다. 한전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홍보하고, 기술이전 및 제품 수출 등 해외사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며 "모스크바 국제전시회 수상을 계기로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한 AMI 인프라 구축 및 검침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IEC TC86 정기총회

한국광산업진흥회가 7일 광주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에서 국내 광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5 IEC TC86 정기총회와 2015국제광산업전시회 연계방안 등 광통신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인 광통신 전문 리서치기관 OVUM사의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가 열렸으며 국내 광통신 기업 및 IEC TC 86 한국전문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10월 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15국제광산업전시회 기간 중 2015 IEC TC86 정기총회를 연계, 국내 광통신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IEC TC86은 광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위원회로, 매년 세계 선진국을 순회하면서 광통신분야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 표준화 관계자들이 광통신 분야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자리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광통신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제2도약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광주서 생산된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 삼성전자 에어컨 모델인 김연아가 온도와 습도, 청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과 '엣지'(Edge) 디자인을 적용한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전량 생산된다. <삼성전자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AARDO 회원기구 가입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사진)가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회원기구로 가입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열린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제18차 총회에서 공사가 회원기구로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AARDO는 아시아 14개국, 아프리카 15개국 등 총 29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케냐 농촌개발원(IRDI)이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기관으로는 두 번째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회원 가입으로 농업농촌개발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AARDO 회원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과 농업·농촌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ARDO는 아프리카·아시아 저개발국의 농촌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196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 및 기관간 농업관련 국제연수, 국제기구 협력사업, 농촌마을개발, 전문가 교류 등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홈초이스, '케이블TV VOD'로 사명 변경



케이블TV VOD 서비스 전문기업 ㈜홈초이스(대표 최정우)가 8일 '케이블TV VOD'로 사명을 변경한다.

케이블TV VOD는 국내 케이블TV 업체들에 방송, 영화,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문형비디오(VOD)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VOD 시장은 2013년 기준 433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VOD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이 VOD 시청에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보통

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34~54세의 VOD 이용경험은 지난해 기준으로 2011년 대비 317.99%, 55세 이상은 406.87%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케이블TV VOD는 폭넓은 중장년층 시청자를 확보한 만큼 향후 VOD 시장 성장을 더욱 주도할 예정이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그동안 VOD는 방송과 극장을 거쳐 2차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VOD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점차 콘텐츠 시대의 핵심으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케이블TV VOD는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서 양질의 콘텐츠, 앞선 UHD 기술, 지속적인 소비자 혜택 제공 등을 통해 VOD 시대의 선도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00억 혜택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small>(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small>	용주점 062)525-2774~5 <small>(용봉동 주민센터 앞)</small>	삼각점 062)525-2776~7 <small>(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small>
--	---	---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소 월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임의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